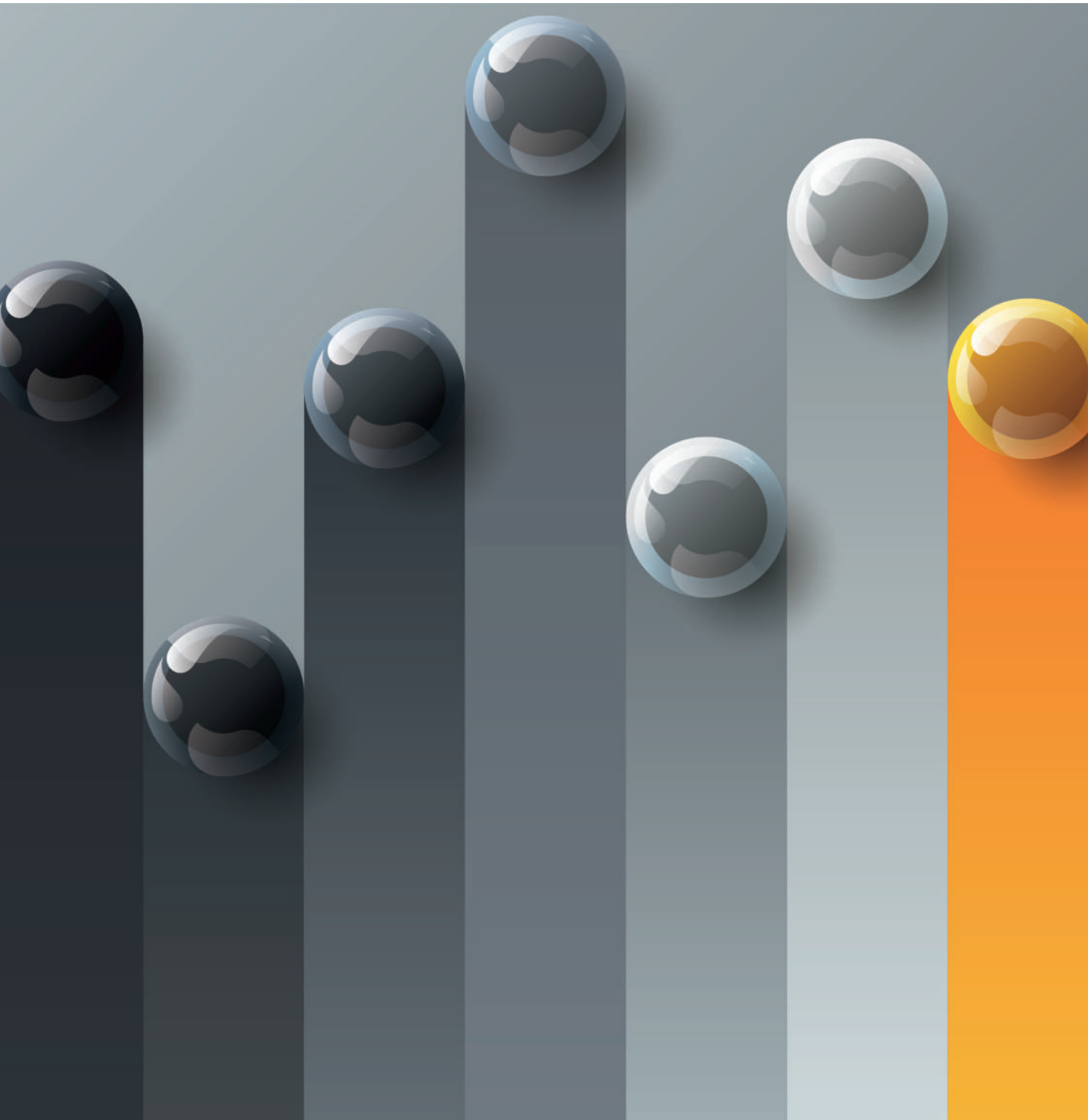
의정부예술

Uijeongbu Arts & Culture 2022



창조의 바다를 항해하는

힘찬 여정

Contents

권두칼럼
- 발간사 ····· 4
-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연혁 ····· 6
-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 7

협회별 이야기
- 국악협회 ····· 10
- 무용협회 ····· 14
- 문인협회 ····· 18
- 미술협회 ····· 22
- 사진협회 ····· 26
- 연극협회 ····· 30
- 연예협회 ····· 34
- 영화협회 ····· 38
- 음악협회 ····· 42

의정부예총 이야기
- (사)한국예총의정부지회 지회장 선거 ····· 48
- 김동근 의정부시장과의 간담회 ····· 50
- 아동폭력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 52
- 2022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 54
- 2022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 60

초대의 글
- 겨울을 잃고 나는 ····· 68
- 사바나 금강송 ····· 69
- 초대칼럼 ····· 70

전시부문
- 문인 ····· 74
- 미술 ····· 80
- 사진 ····· 84

2022 '의정부예술'을 발간하며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 예술작품을 누구나 한 번쯤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은 단순히 예술로서 존재함을 뛰어넘어, 무감각한 일상을 밀어젖히는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무감각한 일상이 물러난 자리엔 신선한 깨우침이라거나 카타르시스 혹은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채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힘을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짙게 담아낸 국악의 선율, 손끝 발끝에 어린 섬세한 움직임들로 감동을 주는 춤사위, 영혼을 어루만져 위로하는 한 편의 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미술작품, 감탄을 자아내는 무수한 사진, 인간 삶을 깊숙이 파헤쳐 보이며 관객과 현장에서 교감하는 연극, 생기 잃은 일상에 흥을 돋우어 주는 노래, 다양한 삶의 양태를 세밀히 담아내어 인간군상을 울고 웃게 만드는 영화들, 소리의 파동만으로도 감동과 울림을 주는 아름답고 웅장한 화음 등이 그 힘입니다. 이에 의정부예총은 매년 공연 및 전시, 문예지와 예술지 발간 등을 통해 대중에게 말을 걸어, 좀처럼 뛸 줄 모르는 현대인의 심장에 신선한 박동을 일으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2022년 12월 6일, 경기북부 최초로 의정부시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5년간 문화 관련 분야에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정부예총이 담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의정부 지역 순수 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여 우리 시의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시민 삶의 질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시민 개개인의 삶이, 감성이 살아 숨쉬고 상상력이 뛰노는 삶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2022. 12.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이미숙

history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1993.07
사진작가, 무용, 연극, 미술, 문인, 음악, 국악 등의
회원 단체가 구성되어
한국 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활동 시작

1993~1996
초대 류후선 회장

1995.06
1995년 6월 10일
의정부1동 190번지 16호 이전 개소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활동 시작

1996~2008
2대·3대·4대 이흥재 회장

2003.05
2003년 5월 10일
의정부2동 477-1호 소재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를 수탁하여
사무실을 이전 개소

2008~2012
5대 김용남 회장

2012~2014
6대 황석자 회장

2015~2020
7대·8대 최명섭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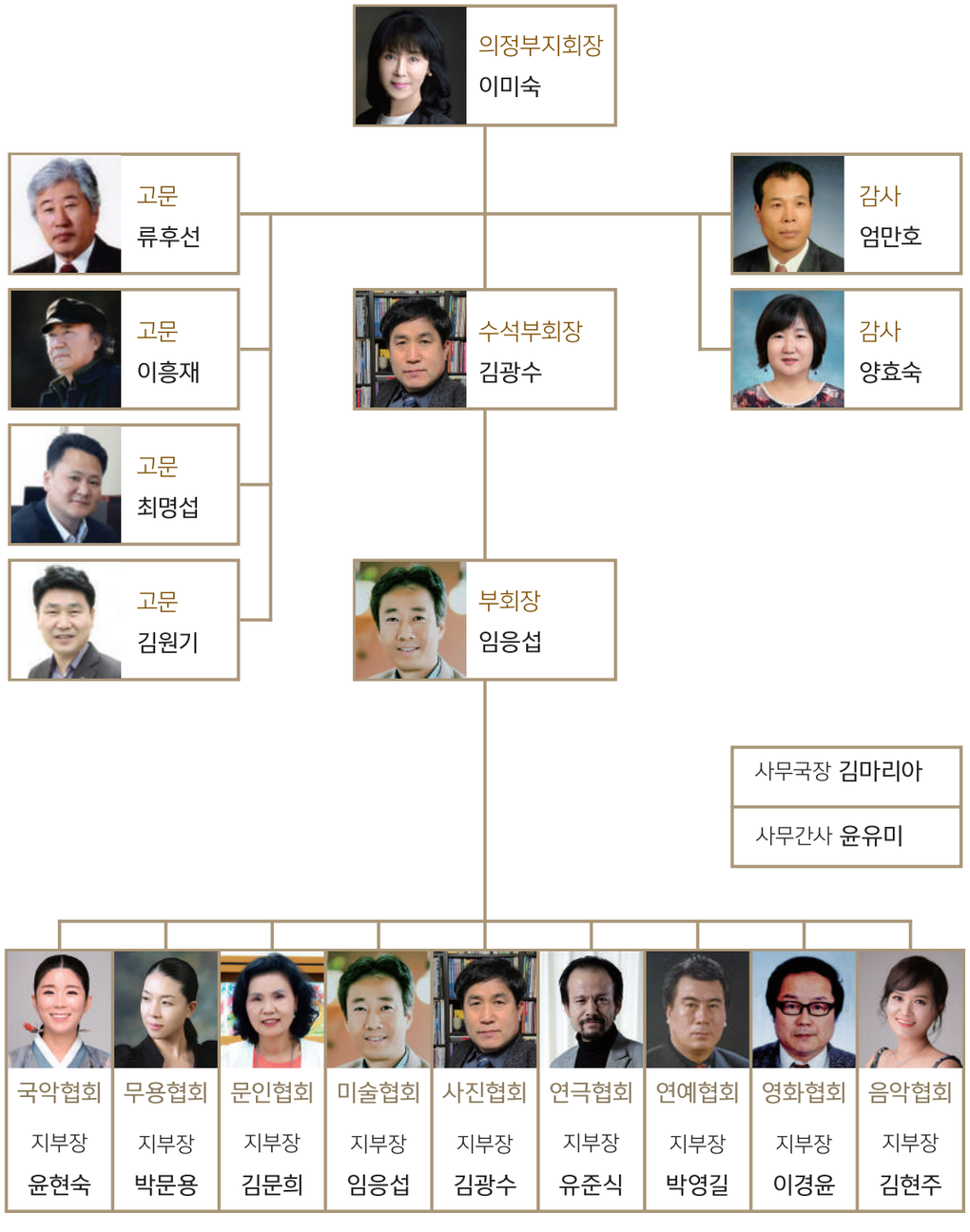
2019.12
(현) 구성단체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9개 단체 구성 회원수 : 1,120여명

2020.05~2022.07
9대 김원기 회장

2022.07
10대 이미숙 회장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설립목적
9개 회원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부 문화
예술의 창달과 교류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함.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협회별 이야기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영화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회장

윤현숙

2022년 국악협회 이야기

코로나로 단체수업을 쉬는 2년 동안 개인적인 기량을 스스로 갈고 닦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대가 그리웠고 국악인들이 함께 호흡했던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2022년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화 되자, 크고 작은 공연을 올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2022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가을 소리로 물들다' 등의 국악협회 공연은 의정부시의 큰 자랑이자 예술인들과 관객이 하나되어 호흡하는 뜻깊은 잔치입니다. 2년을 무대와 동떨어져 지낸 만큼, 좀 더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내내 공연 준비에 힘썼습니다.

우선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서, 자라나는 국악 새싹들이 펼치는 '꿈꾸는 아리랑 민요단'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꾸는아리랑어린이민요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소금장수', '군밤타령' 두 작품을 매주 평일 저녁 꾸준히 의상까지 갖춰 입고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람이 컸습니다.

한편 '제24회 겨울을 여는 소리'라는 타이틀로 겨울 정기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은 국악협회 예술단,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국악의 여러 분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날씨에 관객의 추임새를 들으며 출연자 모두 흥겹게 공연에 임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꿈꾸는아리랑민요단, 가야금병창, 경기 명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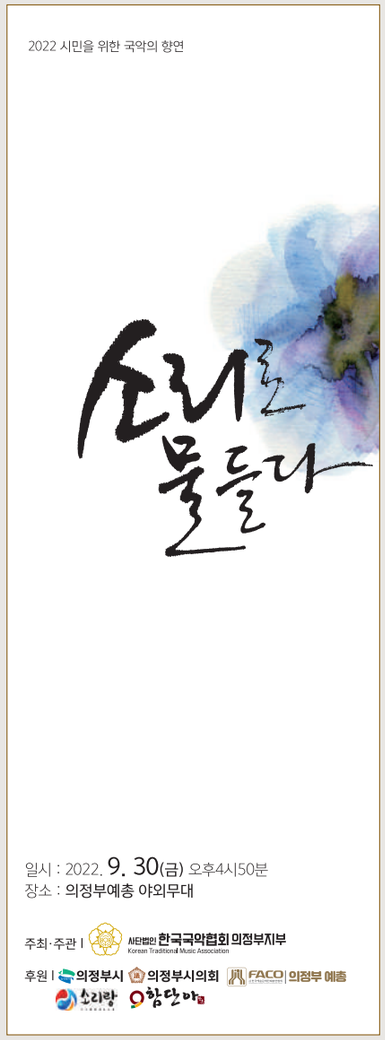
앞으로도 의정부 국악협회는 우리 전통음악의 맥을 잇고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의정부 예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회장 윤현숙

매주 평일 저녁 별빛여울축제 공연 연습 장면

한계명(국악협회 판소리분과 부위원장), 고수 한인석 님의 판소리 공연

꿈꾸는아리랑어린이민요단의 '소금장수', '군밤타령' 공연



소리에 가을이 물들다

국악협회 기획공연

9월 30일 5시20분
풍년가, 양산도, 창부타령 | 국악협회예술단원
가야금병창 | 오주영 외 3
판소리 | 한계명
홀로아리랑, 아리랑연곡-군밤타령-소금장수 | 꿈꾸는아리랑 어린이민요단
배띄워라, 우리뱃노래 | 윤현숙 김진영 최감비

겨울을 여는 소리

국악협회 정기 공연

12월 11일 16시
경기민요 | 꿈꾸는아리랑 어린이민요단
진도북춤 | 이미숙무용단
흥타령 | 한계명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 의정부한국국악예술단
가야금산조 | 한사랑 예술단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 김보연, 고금성
판굿 | 살판협동조합

국악협회 정기공연 '겨울을 여는 소리'는 국악을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을 위한 국악 향연 행사이다. 의정부 국악협회는 제24회 정기공연을 통하여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의정부 시민의 마음에 안정을 심어주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용협회

–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회장

박문용

2022년 무용협회 이야기

2022년 1월 (사)한국무용협회에서 (사)대한무용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사)대한무용협회 의정부지부는 1992년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로 전통무용 공연 활동을 통해 조상의 얼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 창작무용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세계와 공연 활동으로 의정부 관내를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 공연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무용예술로 표현하는 단체이다. 또한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재능기부활동 등을 통해 무용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무용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무용계에 가장 큰 축제인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이미숙무용단'으로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으며, 올해도 성남중앙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한 제31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초·중·고등부·일반부 및 대학부·어머니부 등 세대와 분야를 망라하여 순수예술 무용경연 대회로 우리나라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인과 꿈나무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인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문화예술분야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실용무용 부문을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처음 신설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64팀의 참가로 순수예술분야를 뛰어넘는 경쟁을 보이며 선의의 경쟁으로 뜨거운 무대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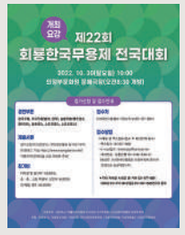
또 다른 사업으로는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과 프로단체가 한 무대를 통해 노래와 음악, 춤으로 소통하는 의정부시 가무악축제를 10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이자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별빛여울축제, 회룡문화제 등 다른 협회 및 예술단체들과 함께하며 의정부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약 30년간 의정부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춤으로 소통하고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용협회는 박문용 지부장을 비롯하여 이소희 부지부장 등 약 4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인들과 비예술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22 제31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오얏꽃을 품다'

매년 행해지는 무용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경연을 목적으로 한 행사인 전국무용제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한 경기도 예선경연대회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예술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무대로 각 시를 대표하는 11팀이 3일간 성남중앙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실시하여 의정부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경기도이미숙무용단'은 동상을 수상하였다. 젊은 무용수들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아름다운 몸짓과 감정으로 표현하며 창작의 혼을 불태우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2022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부, 신인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무용인재 발굴 및 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영상심사에 이어 2022년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올해는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순수예술로만 진행되었던 역사를 깨고 22년 만에 실용무용부문을 신설하여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경연 직후 즉시 점수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무용계의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 대회의 위상을 이어 나가기 위해 당일 행사개최완료 후 바로 수상자를 공개하여 다시 한번 공정한 대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2022별빛여울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의정부시를 대표하고 지역문화예술에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큰 축제인 별빛여울축제에 올해는 '나비의 꿈' 이란 타이틀로 개막식 무대를 장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되었던 예술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꿈과 미래를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하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아름다운 가을밤을 선사하였다. 또한 개막식 다음날인 10월 2일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우리의 전통춤과 민속춤을 선보이며 다시한번 시민들과 함께 즐기며 소통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육활동을 통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매년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는 민속예술단체 제22호 의정부시향토문화재 의정부녹양동버들개농요보존회와 이미숙 회장의 안무, 연출, 교육을 통해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민속예술축제는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각 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의정부시는 10월 8일(토) 의정부 송산사지공원 야외무대에서 자체적으로 경연을 실시하였으며 이미숙 회장, 박문용 지부장, 이소희 부지부장의 지도 아래 약 2개월간 연습하여 경연대회에 출전하였고 축제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만큼 의정부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되었다.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2년 행복로 거리공연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활성화 및 행복로 테마거리 조성,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회룡거리공연" 상설화로 시의 이미지제고와 볼거리·추억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명소화에 힘쓰고 있다.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첫 번째와 세 번째 무대는 화려하고 우아한 궁중정재로 나라의 평안과 만민의 평화를 기원하는 '태평지화무'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화풍별곡, 진주교방굿거리춤, 쟁강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춤과 민속춤으로 구성하여 선보였다. 누구나 즐기며 의정부시의 지역전통문화를 홍보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의정부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2022년 생활예술인경연대회 '제1회 의정부 Dance Festival'

의정부시의 숨은 예술인을 찾아라! 순수예술(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과 대중예술(댄스스포츠, 밸리댄스, 스트릿댄스, 방송댄스 등) 장르 구분 없이 함께 즐기며 경연하는 소통의 장으로 취미가 활력이 되고 그로 인해 일상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한 Dance Festival. 전공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무대로 말 그대로 생활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해주는 무대이다. 올해 1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의정부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제10회 의정부 가무악축제 '2022 어울림 한마당'

예술을 전공한 전문예술인들과 노래와 음악과 무용을 사랑하는 비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채롭고 다양한 무대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문화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가무악축제는 '2022 어울림 한마당'이란 타이틀 아래 경기도이미숙무용단의 단아하고 우아한 동초수건춤을 시작으로 의정부를 이끌어갈 차세대 어린이민요단인 꿈꾸는아리랑어린이민요단의 경기민요메들리, 가야금과 민요가 어우러진 가야금병창, 진주교방굿거리춤, 의정부아리랑예술단의 신명나는 노랫가락, 타악과 춤이 함께 어루러지는 진도북춤,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풍물단인 이담농악보존회의 흥겨운 풍물놀이로 대미를 장식하며 무대의 막을 내렸다. 타이틀 그대로 공연자, 관객 모두가 신명나게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사업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01.26 2022신년콘서트 '남상일의 놀다가쇼'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02.24 2022당대의 춤-지금 이 시대의 춤 (국립국악원 우면당)
05.20 제31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오얏꽃을 품다' (성남중앙공원 야외특설무대)
05.28 2022의정부시 청소년의 날 축하공연 (의정부시청소년회관 한울관)
06.10 의정부시립무용단 제39회 정기공연 '궁, 꽃이 피다' (의정부문화재단 야외무대)
06.24 2022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 (국립극장 하늘극장)
06.25 2022의정부시 관광홍보공연 (의정부시 행복로)
06.29 2022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춤으로 힐링여행 하다' (의정부시호원주간보호센터)
07.02 2022의정부시 관광홍보공연 (의정부시 행복로)
08.15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하공연 (신한대학교 벧엘관)
08.27 제18회 양주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양주덕계공원야외무대)
09.16 제37회 복사골예술제 (부천시청 앞 야외무대)
09.24 2022의정부시 관광홍보공연 (의정부시 행복로)
09.25 2022의정부시 관광홍보공연 (의정부시 행복로)
09.27 2022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가을맞이 가족사랑 콘서트' (의정부시호원주간보호센터)
09.30 2022별빛여울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의정부시청 앞 야외무대)
10.01 2022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춤으로 힐링여행 하다' (의정부시청 앞 야외무대)
10.04 2022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춤으로 힐링여행 하다' (의정부청룡초등학교)
10.04 2022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춤으로 힐링여행 하다' (의정부시대한노인회)
10.08 의정부시립무용단 제40회 정기공연 '의정부에 빛이 내리다' (의정부송산사지근린공원 야외특설무대)
10.09 제31회 구리무용제 축하공연 (구리시청 대강당)
10.20 2022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춤으로 힐링여행 하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
10.23 의정부청소년재단 2022청소년동아리대축제 축하공연 (의정부시청 앞 야외무대)
10.29 전남장수 '2022한우랑 사과랑 축제' 축하공연 (장수 의암지공원 야외특설무대)
10.30 제22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개최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11.24 제10회 의정부가무악축제 '2022어울림 한마당'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12.13 2022년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제1회 의정부 Dance Festival'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이외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었으나 회원들의 식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성장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다.

문인협회

–

(사)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회장

김문희

문학으로 소통하는 의정부문인협회

문학은 삶의 이야기를 글로 쓴 것으로 문학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며, 문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정부문인협회는 문인들이 교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봉사 단체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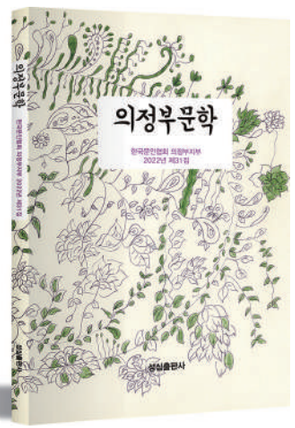
문인들은 글로 소통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도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글을 공유하며 토론의 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대면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을 때 문인협회는 단체카톡방에서 매월 정기 모임을 열어 회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본인의 시와 수필을 올리고 감상평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세 분의 작가님들이 한 분씩 차례로 온라인상에서 문학론 강좌를 했고, 회원들의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연재한 임영만 시인의 300자 시론, 이어서 김효경 소설가의 색깔있는 문학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김기수 평론가가 좋은 시와 작가 소개를 했습니다, 회원들은 글을 읽고 나름대로의 감상평을 올리며 문학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의정부문인협회 회원들 중에는 신간을 발간하는 분들이 해마다 여러 분 계십니다. 금년에는 이지향 시인이 '절벽위에서 헤드뱅인을' 외 세 권의 시집을 내었고, 임영만 시인이 '詩 한 줌이 너였다가', 김선용 시인이 '나비가 지나간 자리처럼', 류일화 시인이 '한 송이 꽃잎이었다'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매년 갖는 분과별 모임을 금년에는 운문분과장과 산문분과장이 통합하여 문학 야유회 모임으로 추진했습니다. 운악산 기슭 계곡에서 자연을 즐기며 문학 토론을 하고, 즉석 시낭송대회를 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원 상호 간의 결속력과 개인의 실력 연마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정부시민들과도 호흡을 같이하며 문학 발전을 선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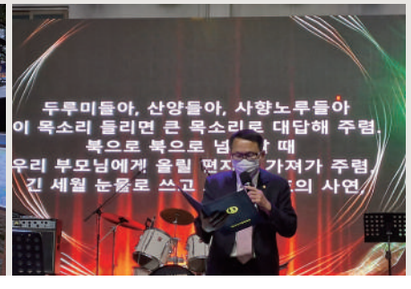


의정부시청에서 주관한 유월 의정부음악극 축제 기간 중에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에 '문인협회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의정부문학 제30호'를 배포하고, '책갈피 만들기' 체험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열중해서 만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든 책갈피가, 의정부시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하고 문학을 더욱 좋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문협 30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역대 임원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대 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문인협회의 지난날들을 되짚어 보며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점 등을 이야기 나누었고, 문협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이숙경 작가가 회의록을 정리하여 '의정부문학 제31집' 특집에 실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는 '제4회 의정부별빛여울축제'에서 문인협회는 시화전과 시낭송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회원들의 자작시를 담은 시화 액자 50점을 문인협회 부스 옆, 공터에 전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정부 문인협회 가을 향기 시 받' 시화전을 관람하러 오셨고, 문협 회원들이 다가가 시 해설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의 시낭송은 이숙경 소설가와 신성수 시인이 평화를 주제로 쓴 자작시를 낭독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그림 배경 위로 시가 자막으로 올라가고,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시를 낭송하여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2회 생활인예술대회’의 일환으로 ‘제1회 의정부 시민 시낭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식적인 시낭송대회로는 의정부시에서 처음 시도한 행사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대회에 참가했고, 시낭송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24회 의정부전국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응모한 작품들을 1차 심사, 2차 심사로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여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문부문에서 고등부와 중등부의 작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의정부문인협회의 한 해의 마무리는 ‘의정부문학’ 출판으로 꽃을 피웁니다. 회원들의 작품과 문학이야기, 그리고 전국문학공모전 운문부문 최우수작 세 편(일반부, 고등부, 중등부)을 게재했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의정부문학’은 문인협회의 꽃입니다. 12월 10일, 예총 강당에서 ‘제31집 의정부문학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미숙 예총회장님, 김원기 전 예총회장님, 그리고 예총 산하 여러 지부장님들이 참석하였고, 문협 회원들의 친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오셔서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류일화 회원이 차린 꽃차우림 상은 기념식 내내 은은한 꽃차향으로 기념식장을 채웠고, 참석자들이 꽃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장 못지않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의정부문인협회’는 문학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시민들의 입회를 환영하며, 의정부시의 문학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미술협회

–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회장
임응섭

2022년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소회(素懷)

5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을 최근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말이다. 이 녀석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예술인들에게 준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그나마 다니던 문화센터 수업마저도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고 예능 학원도 수강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2년여 동안을 아무런 대외 활동을 못 하며 근근이 살아왔다. 이는 예술이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면서도 예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일어나는 현실인 듯하다.

프랑스는 지구상에서 예술가들이 끼니 걱정 없이 작품 활동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프랑스어로 '휴지기'를 뜻하는 말인 앵테르미탕은 영화·공연·방송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들을 위한 실업급여 정책을 말한다. 일거리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1969년에 만들어진 제도다.

미국 순위 조사 전문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을 앞질러 한국이 6위에 올랐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는 문화예술도시를 외치지만 말고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난하고 실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프랑스 역시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이다. 프랑스의 예술가 노조 역사는 1871년 파리코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예술가 노조는 직능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발전한다. 앵테르미탕 제도를 통해 일이 없는 예술가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10개월 동안 507시간의 예술 활동 인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버는 수입의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시 예술인 노동의 가치를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12일 예술인복지법과 2021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위원회와 문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시적 행사지원과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술인들의 생활에는 보탬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행이 필요하다.

2022년 의정부 미술협회는 의정부문화재단의 '100만 원 실험실'을 통해 의정부2동 성당, 의정부 평생학습원과 손잡고 '물꼬를 트다'라는 행사를 치렀으며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에서는 '아트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때는 '휘호대회'를 열었으며, '제31회 전국 회룡미술대전'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각 분야 신진작가들이 참여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정부문화재단 전시장 공사로 인해 온라인 전시만 가능하고 대면 전시는 추후로 미루어진 것이다. 회원전인 의정부 현대미술초대전은 노원미술협회와 함께하는 전시로 12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전시이다. 의정부문화재단 전시장 공사로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

반가운 소식은 이미숙 회장님과 각 지부 지부장님들의 노고로 2023년부터 각 협회 사업의 자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계묘년을 맞이해, 의정부가 법정 문화도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의정부예총 이미숙 회장님 및 각 협회 지부장님들이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길 소망한다.

2022년 12월 30일 미술협회 지부장 임응섭

제31회 전국회룡미술대전 HOERYONG Great Arts Exhibition 2022

전국회룡미술대전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공모전이다. 본 공모전은 생활예술인과 신진 작가들이 전문예술인으로 거듭나는 데 등용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작품 발표의 장이 되기도 한다. 올해로 서른한 살을 맞이한 본 공모전이 문화도시 의정부의 격을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의정부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한 몫을 담당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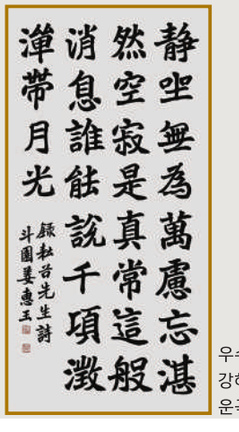
대상 | 한국화 | 정나림 | 유토피아

대상 | 캘리그라피 | 이미우 | 정연복의 아기나팔꽃

최우수상 | 문인화 | 최춘자 | 학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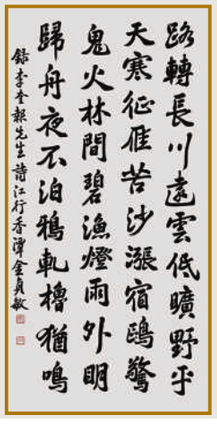
최우수상 | 전통미술 | 공예 | 최정희 | 화조도 8폭 병풍

우수상 | 서양화
이영숙
겨울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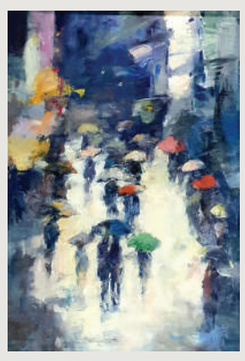
우수상 | 서예
강혜옥
운곡 선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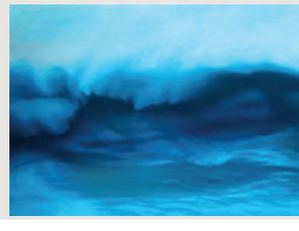
우수상 | 문인화
김은미
붉은 그리움


우수상 | 서예
김정민
이규보 선생 시

2022 의정부현대미술초대전 The Invitation For Modern Fine Arts Uijeongbu 2022

의정부미술협회는 30여 년간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작가 발굴에 노력한 바 30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는 지역 대표 순수예술단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부의 대표적인 미술단체로서 공헌하고자 매년 '의정부현대미술초대전'이라는 제목으로 100여 명의 예술인이 미술의 흐름을 공유하고 세미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양질의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관해 고뇌하는 시간을 갖는다. 의정부문화재단 전시장 공사 관계로 이번 현대미술초대전을 온라인 전시로 대체함이 아쉽다.





사진협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회장

김광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이야기

도시의 불온함과 불균형을 극명한 콘트라스트와 초점 흐린 사진들로 담아낸 일본의 사진가 모리야마 다이도는 사진의 기본을 기념, 기억, 기록으로 정의했다.

의정부 사진작가협회는 2022년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었다. 2020, 2021년 두 해 동안에는 정기출사도 전면 취소되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회를 여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으며 사진인들 간의 소소한 만남조차 꺼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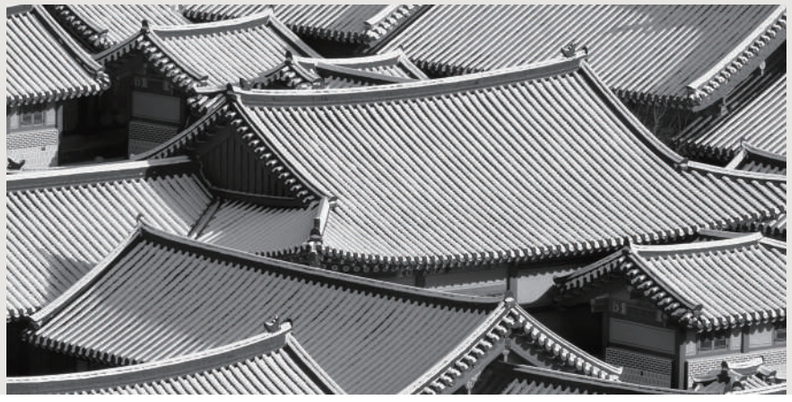
모두에게 어렵던 시기였지만 작품활동을 해야만 했던 사진인들에게도 그 힘듦은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후부터 공모전의 참여 출품작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회원전은 대관 장소가 전무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회원전과 공모전 행사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남녘 통영지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민현대미술관 초대 지역작가 기획전을 경기북부사진인들의 참여로 이끌고,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린 경기도포토페스티벌에 참여하였으며, 의정부예총 주관 별빛여울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남겼으며, 자매결연을 맺은 통영지부와 합동 회원전을 치렀고, 출품 수는 줄었지만 지출을 억제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룡공모전의 명맥을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의정부문화상 문화예술 부문에 사진작가협회 김광수 지부장의 수상으로 축제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며, 생활예술인경연대회 일환으로 의정부시민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진작가협회의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 모두를 기념하였으며, 기억했고, 여기에 기록한다.

제 30회 회룡전국사진공모전 및 제 2회 의정부시민사진공모전 심사



제 27회 회원전 및 제 30회 회룡전국사진공모전 전시 후

통영지부 회원 작품

통영지부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지역작가 초대전 참가
(사진부문 : 김광수)

제 27회 경기도사진대전 및 2022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참가 후
(左부터 이옥순, 강양희, 김광수, 정순자, 권희택)

제 35회 문화상 수상하면서 김동근 시장님과(사진협회 김광수)

제 19대 지부장 당선 후(조한규 前 지부장, 김광수 現 지부장)

연극협회

–

(사)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회장

유준식

2022년 연극협회 이야기

1995년 의정부의 프로 연극인들이 모여 설립한 전문 연극인·단체 연대체이다.

그간 '통일예술제' 총연출, '원코리아페스티벌' 개최, '별빛여울축제' 공연 등 축제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매년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하여 2008년, 2019년 경기도대회 대상과 2019년 본선(전국) 금상을 수상하여 의정부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일제잔재청산마당'을 개최하는 등 의정부시민들의 문화 저력을 한데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효도하는 연극 '효 공연'을 매년 쉼 없이 펼쳐와 연극의 진정한 가치를 넓히며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연극협회는 극예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유를 위해, 전문 연극인 양성을 위해,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매년 끊임없이 창작과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고 의정부시가 더 나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유준식 지부장과 박정근 부지부장, 최병화 · 무세중 고문, 전영옥 이사, 문인옥 감사, 이왕일 사무국장 등을 멍석으로 삼아, 극단 '허리', 극단 '한네', '대동'전위극회 등의 연극단체 소속 50여 명의 회원이 극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작 '너무 놀라지 마라'

우리의 현대 사회상을 꼬집은 블랙코미디 명작. 현대 사회 속 우리네 상처를 더욱 아리게 파고들어가 대한민국 현대사(現代史)를 드러내놓는다.

이 작품은 강렬한 무대미술과 거친 조명, 그리고 그 험악함 속에서 배우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어 천연덕스럽게 아픈 상처를 드러낼 정도의 깊은 연기력과 앙상블로 폭소의 눈물을 자아낸다.

2022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창동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너무놀라지마라'는 코로나로 힘든 여건속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매회 매진을 기록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의정부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힐링공연을 가졌다.

효 기획공연 '동행'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 한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이 계신 시설을 직접 찾아가 즐거운 공연을 올렸다. '동행'은 고등학교동창들이 40~50년 후에 만나 추억과 감동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시'같은 연극이다. 배우들의 클라리넷 연주도 관객들을 힐링의 세계로 이끈다.

원코리아페스티벌

원코리아페스티벌은 90년도부터 지역문화콘텐츠를 계발해오는 의정부연극협회의 오래되고 가장 현실적인 사업으로 토론회, 포럼, 총체극, 뮤지컬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일궈왔다. 자칫 무겁게 느낄 수도 있는 이 테마를 지역적 분단과 화합, 정치적 분단과 조화, 세대 간의 분단과 상생, 친구와의 소통단절과 우정, 가정의 분열 내지는 가족의 소외 등등 평화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테마로 삼는다.

음악극 '민들레홀씨되어'

"발달장애인의 자아성취감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의정부연극협회 소속 극단허리가 지역공연문화 저변확대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공연문화의 주체로서 연극공연활동을 통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전문예술인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8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낭독극 뮤지컬 의순공주

연극협회소속 극단허리의 〈지역콘텐츠 창작 레퍼토리〉는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 유·무형 문화재 등의 자원을 소재로 삼아 콘텐츠화 하는 지역기반의 대표적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첫걸음으로, 지역기반 창작의 지속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 의순공주이다.

의정부생활연극인 경연대회 – 연극뮤지컬부문

의정부시민의 여가선용과 힐링을 위한 마당으로 오롯이 자신의 취미와 관심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여준다. 또한 이 '끼' 자랑대회에서 입상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시민극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지게 되어 자신들의 이상적 자아를 실현할 꿈의 연극무대에 설 수 있다.

연예협회

–

(사)한국연예협회
의정부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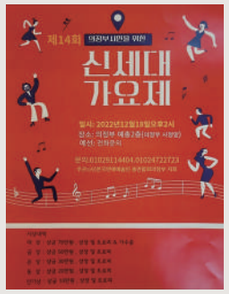
박영길

2022년 연예협회 이야기

연예예술인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아픔을 예술로 위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연예협회는 지난 4월 말 2년 1개월여 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다양한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비둘기가요제와 신세대가요제를 통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시민들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더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는 연예협회가 되겠습니다.

신세대가요제

12월 18일에 치러진 제14회 신세대가요제는 신세대들이 꿈과 열정을 펼치는 가요제로써 의정부지역에 거주하는 신세대들에게 의정부를 알리고 세계적인 스타로 나가게 해줄 글로벌 축제의 장으로, 올해의 대상은 한유란 참가자가 차지했다. 금상은 김예지, 은상은 김준호, 동상은 한아름, 인기상은 정현우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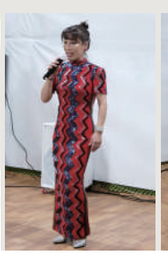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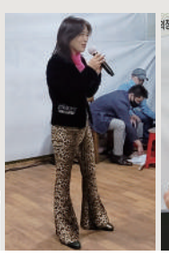
비둘기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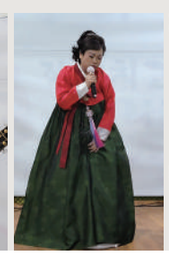
12월 13일에 치러진 제1회 비둘기가요제는 의정부의 시조인 비둘기에서 영감을 받아 열린 가요제로, 비둘기의 상징인 '평화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다. 제2회 의정부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중에서 연예협회 주관의 가요제로 시민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로, 올해의 대상은 한아름 참가자가 차지했다. 금상은 한성호, 은상은 최우리, 동상은 최가휘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제5회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

12월 23일에 치러진 제5회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대면행사로 한국의 대중가요사에서 70-80년도를 풍미했던 그 시절 가수들의 노래를 재현하고, 우리들의 삶과 애환을 무대에 올려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정기모임

연예협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네시에 정기모임을 가져왔다.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한 달간의 정보를 교류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회원증 및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수상을 한 회원들에게는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야유회

6월 19일 양주시 마두령 고개에서 회원 및 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여름의 정취를 느끼며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회원 간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열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 야유회는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단합의 장이었다.

가수들의 이모저모

김호준 –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최정 – 지구를 위한 생태 환경 보전 문화 캠페인 공연

송민수 – 김포시 학운리 마을잔치 노래자랑 대상

신비 – 부대찌개 축제 공연

남정미 – 장구 난타 공연

이지연 – 의정부예술인의밤 예총회장상 수상

송년회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3년 만에 제대로 된 연말연시를 맞았다. 이를 맞이하여 연예협회는 12월 28일에 송년회를 열어 서로 일 년 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영길 협회장은 오기덕 위원장과 최정 위원장, 송민수 회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영화협회

–

(사)한국영화협회
의정부지회장

이경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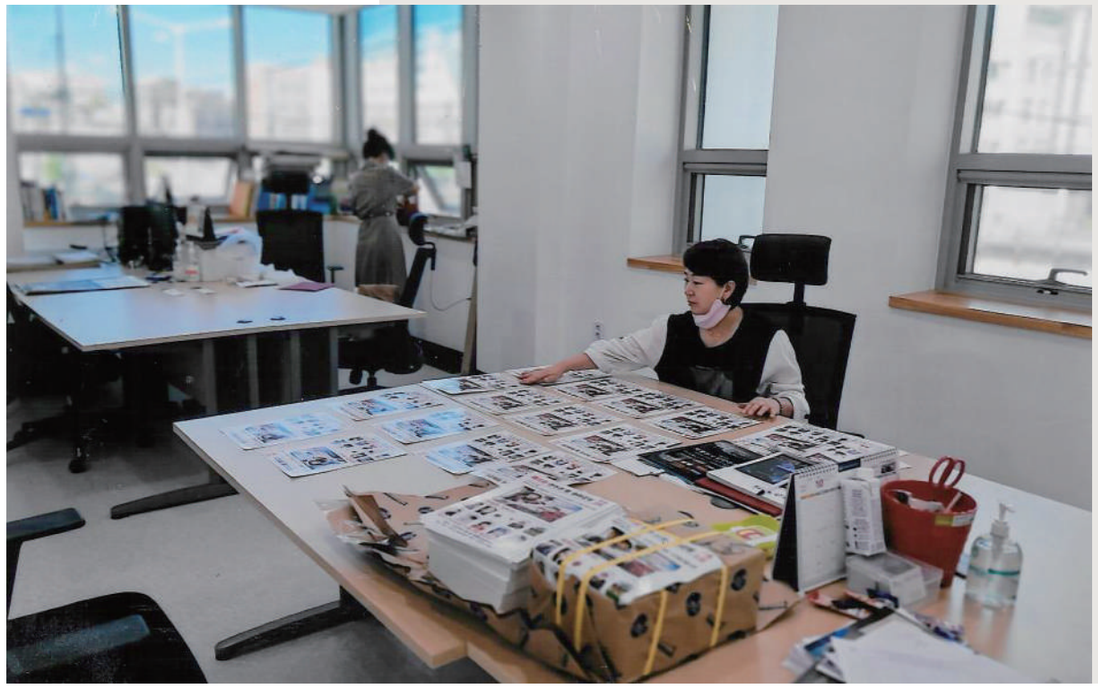
2022년 영화협회 이야기

영화란 무엇인가?

1. 영화란 활동사진이다.
2. 영화의 종류.
   - Ⓐ 기록영화 : 사실을 바탕으로 영상화한 작품. 등산기록, 스포츠, 동물의 왕국 등.
   - Ⓑ 극영화 : 이야기를 만들어 영상화한 작품.
   - Ⓒ 만화영화 : 만화가의 그림을 영상화한 작품.

영화가 예술인가?

- Ⓐ 종합예술이다. 총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여러 분야 기능인들이 협심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 Ⓑ 과학예술이다. 촬영기, 조명기, 녹음기 등 과학기계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 Ⓒ 상업예술이다. 영화는 관객의 취향에 맞는 오락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한국영화인협회 의정부지회는 매년 9~10월경 '만추의 밤' 행사를 통해 우수한 한국 영화를 무료 상영해왔다. 2022년 10월 '만추의 밤' 때에는 반공영화 '연평해전'을 상영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서울 월드컵 당시 월드컵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해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도발행위를 소재로 제작됐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북의 만행을 일깨워주는 화제작, '연평해전'을 통해 순직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영화감독 이경윤

연평해전

개봉 : 2015.06.24.
등급 : 12세 관람가
장르 : 드라마
배급 : (주)NEW
러닝타임 : 130분

내용

해군 출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대위. 아내의 든든한 남편이자, 참수리 357호 조타장 '한상국' 하사.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참수리 357호 의무병 '박동혁' 상병…. 참수리 357호 대원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된 훈련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 무더운 여름과 함께 월드컵의 함성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 경기가 열리던 그날, 서해바다 한 가운데에 포성이 울린다…

음악협회

–

(사)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회장

김현주

2022년 음악협회 이야기

의정부음악협회는 1993년 출범하여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가진 의정부의 전문음악인들 모임입니다. 의정부 관내 음악인 및 20개의 단체 약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의 예술 활동 지원 및 시민의 음악적 필요 충족을 위한 공연 기획 및 교육의 확산과 행복도시 의정부의 문화정책 제안 및 실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원들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회원음악회', 음악협회의 자랑이자 30년간의 전통을 이어 온 '의정부시 합창대축제', 공연장 방문이 어렵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와 자라나는 예술꿈나무들을 위한 '의정부시 전국 음악콩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문화재단, 의정부시청과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예총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며 관내 음악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기대하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2년 의정부음악협회는 젊은 음악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음악인들을 발굴하여 협회에 참여시키고 다양한 음악분야의 참여를 공식화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하는 음악협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2 제15회 회원음악회
「일상 그리고 새롭게」

5월 14일 의정부문화원에서 개최된 회원음악회에서는 새로운 의정부의 음악인들을 소개하고 역량을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젊은 음악협회 회원들의 연주는 의정부의 음악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예술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의정부음악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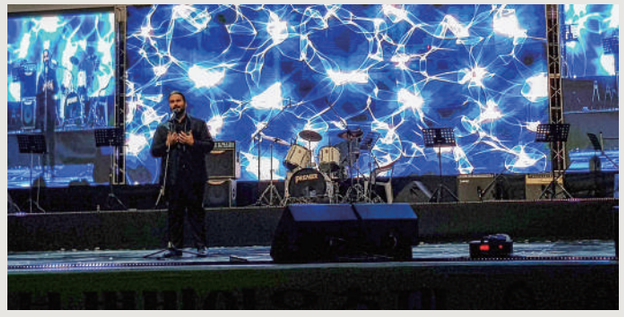
6월 18일에는 음악협회와 협업기관인 의정부음악도서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의정부의 젊은 신진음악가들이 클래식은 물론 재즈, 뮤지컬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였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2년 기전음악제 의정부
「가을향기 음악회」

9월 24일에는 경기도음악협회가 주최하는 기전음악제를 유치하여 의정부의 연주단체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선사하였습니다.

2022 별빛여울축제

9월 30일 예총별빛여울축제에서는 회원연주단체의 금관연주와 음악협회가 선정한 초청성악가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별빛여울축제를 즐기러 오신 시민들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적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제27회 의정부합창대축제 「우리가 하나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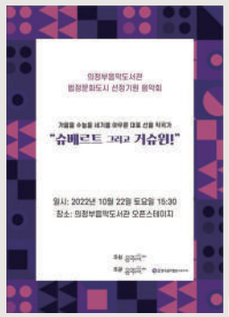
10월 1일에는 27회를 이어져 온 의정부합창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의정부의 많은 합창단이 다시 모여서 음악을 만들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인철 총감독님을 중심으로 의정부의 각 합창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 찾아가는 행복배달음악회

10월 한 달 간 의정부의 각 지역에서 진행된 행복배달음악회는 음악연주를 접하기 어렵거나 음악회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음악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연주하는 음악협회와 의정부시가 협업하는 주요사업입니다. 이 연주를 통하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시민들에게 음악적 아름다움을 나누고 소통하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의정부시 및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도시선정기원음악회

10월 22일에는 문화도시 선정 기원 음악회를 의정부음악도서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고급프로그램으로 연주를 준비하였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또 한번 놀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의 음악적 갈망과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2 의정부 생활예술경연대회

11월에는 예총 주최 생활예술경연대회의 음악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의 많은 음악인들과 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활음악인들의 연주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음악인들의 연주 기회를 만들 필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12월 22일 의정부문화원에서 개최된 의정부 예총 예술인의 밤에서 음악협회 회원단체인 '핀덴'이 특별 축하공연을 하였으며, 김현주 지부장을 비롯하여 여러 음악협회 회원들이 각종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음악으로 다시 피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정부시의 지원과 관심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정부음악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음악이 녹아 있는 의정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부예총의 다양한 사업은 음악협회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예총 이야기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장 선거

김동근 의정부시장과의 간담회

아동폭력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2022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2022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제10대 회장에 이미숙 의정부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당선

이미숙 의정부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 제10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미숙 회장은 7월 23일 오후 5시 의정부예총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득표율 55%로 상대 김덕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선거는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김용수 회장, 유명종 사무처장이 참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9개 지부(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영화·음악) 대의원 총 45명 중 42명(93%)이 참여했다.

이미숙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하나 되는 의정부예총, 지속 발전하는 의정부예총'으로 거듭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미숙 회장과 함께 의정부예총을 이끌어갈 임원진은 ▲김광수 수석부회장(사진) ▲유준식(연극)·임응섭(미술) 부회장 ▲엄만호(사진)·양효숙(문인) 감사가 선출됐다.

한편 이미숙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한 체육학박사로서 다양한 무형문화재 이수 경력을 쌓아왔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품이춤을 이수하고, 현재는 의정부시 무형문화재 제22호 경기수건춤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숙 회장은 지역 활동도 왕성하다. 현재 의정부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의정부버들개농요민속보전회 회장, 의정부문화원 부원장 등의 직을 맡고 있다.

주요 수상경력은 제11회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개천한국무용제 장원(문체부장관상), 제2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무용부문 장원(문광부장관상), 전국신지식인 모범사례공모전 우수사례 선정(국정홍보처장상), 경기도여성상(경기도지사상), 의정부시문화상(의정부시장상),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지도자상(문체부장관상), 보훈무용예술협회 보훈댄스페스티벌(대통령상) 등이 있다.

출처 : 위클리오늘(http://www.weeklytoday.com) 우서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과의 간담회

김동근 시장,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제도 폐지 약속! 의정부예총, 자부담제도 폐지 이후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힘쓸 것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예총회장 및 각 협회 지부장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의 중심 화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제도 폐지 가능 여부였다. 간담회에 앞서 의정부예총은 자부담제도 관련, 아래와 같은 현황을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제도란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시, 지원받는 단체에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단체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나아가 단체에게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의 실태는 자부담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는 영리단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기본 자산을 가진 단체가 없어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렵다.

2017년 9월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경기천년과 경기 문화예술 발전 방향 대토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중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체의 26%, 월 100만 원 미만이 57%, 월 200만 원 미만이 83%이다. 예술단체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 단체 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 도움이 18.6%, 빚이 9.3%이다. 이러한 상황은 2022년 현재까지 나아진 바가 없다. 자부담 비용 마련을 위해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하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후원도 힘든 실정이다.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산업 분야 단체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산업 분야와 예술 분야를 동일시해서 획일적으로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받는 보조금을 종잣돈 삼아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비영리 예술단체 문화예술 활동은 시민이 향유의 최종 수혜자이며, 예술인들이 보조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 산업 분야와 전혀 다른 문화예술계 자부담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민간 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자부담을 마련할 재정 능력이 없는 예술단체의 경우,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부담 비용이 없을 경우, 편법을 동원하게 되어 예술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 부천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체의 자부담제도를 폐지했다. 안양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낮춘 상태이다. 그 외 충청북도 전 지방자치 단체와 제주도 및 대전시 역시 예술단체의 자부담제도를 폐지하였다. 점차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술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구축을 위해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적 예술단체에 자부담을 강요하는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위 사항을 검토한 의정부시는 자부담제도 폐지가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간담회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자부담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숙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자부담제도 폐지는 지역 순수 예술인들이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창의적 예술 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의정부예총은 자부담제도 폐지 이후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의 예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인 의정부 별빛여울축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축제를 끌어갈 것인지 숙고해 주기를 당부한 것이다. 이에 의정부예총 측은 우리 고장을 빛낼 우리만의 프로그램 발굴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의정부예총 이미숙 회장은 우리만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다시 찾아뵐 것을 김동근 시장에게 약속했다.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ENDviolence) 동참

이미숙 의정부예총회장,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이미숙 회장은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ENDviolence)에 참여했다.

아동폭력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유니세프(Unicef)가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자는 세계적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Take action, stop violence).'라는 슬로건 아래 'END Violence' 로고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의정부문화재단 박희성 대표의 지목을 받은 이미숙 회장은 '캠페인이 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정부예총이 되겠다'고 강조한 뒤, 다음 참여자로 의정부 청소년재단 이한범 대표, 대한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 의정부민예총 하창범 대표를 추천했다.

아동폭력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현황

2022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2022년 9월 마지막 날과 10월의 첫날,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부시청 앞 상설야외무대에서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를 개최했다. 본 축제는 의정부예총 아홉 개 협회 순수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창작물을 시민 앞에 펼쳐 보이는 장이었다.

축제 첫날인 9월 30일은 개막식을 비롯해 국악협회·연예협회·무용협회·음악협회·문인협회의 다양한 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이동준과 신승태의 노래로 흥을 북돋웠다. 둘째 날인 10월 1일엔 식전 공연인 음악협회 합창대축제에 이어 무용협회·연예협회의 공연과 오카리나 합주·초대가수 공연 등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 밖에도 문인협회 액자 시화전과 사진협회 작품 전시 및 즉석 뻥튀기와 호두과자 무료 나눔, 미술협회의 아트상품 제작 판매 및 미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너 나 없이 겪어온 무력감이, 바닷물을 풀어놓은 듯한 푸르른 가을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하나 되는 뜻깊은 장인만큼, '의정부 별빛여울축제'를 통해 펼쳐 보이는 각 협회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한층 더 키워낼 것임을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은 다짐한다. 그 결과 본 축제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만한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 축제
2022. 9. 30.(금) ~ 10. 1.(토)

제4회 의정부
별빛여울 축제
2022. 9. 30.(금) ~ 10. 1.(토)

제4회 의정부
2022. 9. 30.(금) ~ 10. 1.(토)

가을 시화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제1회 의정부 시낭송 대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 아트상품 판매

2022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따뜻함이 그리운 때였다. 하지만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행사가 진행된 현장은 훈훈했다. 코로나 팬데믹 탓에 3년 만에 '예술인의 밤' 행사를 치르게 된 예술가들의 열기가 극장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영혼의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영혼의 언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깊이 파고 들어가, 저마다에 내재된 본연의 천진함을 의식 위로 길어 올려 주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무료하고 황막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상 속 의미를 되찾는 일이 적지 않다.

예술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또 한 해 예술혼을 불사른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이 자축의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감사한 분들께 의정부예총 가족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에겐 예를 갖춰 시상함으로써, 흡족한 마음으로 2022년과 작별했다.

한 해 동안 애쓴 의정부예총 가족과, 물심양면 의정부 예술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하나 된 자리였다.

초대의 글

수고로웠던 2022년 한 해와
새해라는 큰 선물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의정부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2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국악협회장 **윤현숙** 무용협회장 **박문용** 문인협회장 **김문희**
미술협회장 **임응섭** 사진협회장 **김광수** 연극협회장 **유준식**
연예협회장 **박영길** 영화협회장 **이경윤** 음악협회장 **김현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이 미 숙**

수상자 여러분

2022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시상 내역

의정부시장상	연예협회 박민호, 음악협회 김현주.
시의회의장상	무용협회 김선혜, 사진협회 권희택, 국악협회 강정님.
김민철 국회의원상	미술협회 임미환, 연예협회 신민정.
오영환 국회의원상	국악협회 윤현숙, 문인협회 김기수.
최영희 국회의원상	연극협회 최상우, 음악협회 김누리.
한국예총회장상	연극협회 박정근, 미술협회 허종구, 무용협회 한정아.
경기예총회장상	연예협회 김용환, 사진협회 김영수, 음악협회 황승찬.

의정부예총회장상

국악협회 한계명, 국악협회 오주영, 국악협회 한인석, 국악협회 정선미

무용협회 김안나, 무용협회 박다슬, 무용협회 조나현, 문인협회 김중일

문인협회 김효경, 문인협회 이정희, 미술협회 강연옥, 미술협회 박한흥

미술협회 전성희, 미술협회 이승현, 사진협회 양윤정, 사진협회 정현진

연예협회 김　현, 연예협회 민성욱, 연예협회 이지연, 음악협회 반호성

음악협회 조매란, 음악협회 최두리.

초대의 글

초대 시
겨울을 잃고 나는
사바나 금강송

초대 칼럼
도전하고 좌절하고 위로하며
신나게 즐기는 문화예술

한혜영 _ 시인

1989년 《아동문학연구》 동시조 당선.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98년 계몽아동문학상 소년소설 당선.
미주문학상, 동주해외작가상,
해외풀꽃시인상 등 수상.

저서로는 시집
『태평양을 다리는 세탁소』
『뱀 잡는 여자』
『올랜도 간다』
『검정사과농장』 외
다수의 동시집과 장편동화가 있음.

겨울을 잃고 나는

나는 흰옷을 걸쳐본 지가 오래된 종려나무, 소금기에 푹 절여진 꼬리를 끌고 해안가를 어슬렁거려요 마음은 죽을 자리를 찾는 늙은 늑대 같기도 하고 조문을 다녀가는 시든 꽃 같기도 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깃발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겨울을 잃은 것들은 다 그래서 혀가 포도나무 덩굴처럼 길어졌어요 살려면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잡고 올라야 해요 아니면 녹아서 줄줄 흐르니까 얼음조각처럼 잘 생긴 배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얼굴이 바닥에 질펀해요 뱀은 늘어질 대로 늘어진 혈관을 끌고 서늘한 굴을 찾아가지요

저기서 시계바늘을 휙휙 돌리는 여자! 아직도 홈쇼핑의 채널을 지키네요 세상에는 없는 계절을 파는, 소매가 긴 스웨터로 감춘다고 감췄지만 손가락을 보니 거미의 종족이에요 땀이라고는 흘릴 줄 모르는, 카펫가게의 상인처럼 공중에 척척 펼쳐놓는 상술로 하룻밤에도 무성한 계절을 팔아치우지요

늙은 테이프처럼 늘어진 시간 속으로 예고 없는 눈보라가 휘날려요 영하라는 말은 춥디추웠던 옛 연인의 이름, 나는 그리움을 코트 깃처럼 세우고 무릎이 푹푹 빠지는 이름 속으로 들어가요 라라의 노래를 들으며 닥터 지바고처럼 눈이 빨개지면서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네 개의 다리 중에서 겨울이 망가진 안락의자는 누가 쓰다가 버린 기호일까요 완벽하게 균형을 상실해버린, 어떤 감동도 휴식도 줄 수 없는,
저 그런데 말이에요 벽난로가 어떻게 생겼지요?

사바나 금강송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걸어 다니는 금강송을 보았소 기하학적무늬를 가진, 긴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초원을 떠도는,
나무에게도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거요 그렇지 않고서야 금강송의 무리가 그 머나먼 초원에서 발견될 턱이 없지 않겠소

나무가 나무를 먹는 장면은 보편적이면서도 꽤나 고통스러운 은유였소 아카시나무 거친 가시를 삼키는 금강송의 목구멍으로 쓰디쓴 사유가 올라왔을 테요
어느 때는 달까지 먹어치워 캄캄하게 저문 밤을 몇 년이나 헤매기도 했을 테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금강송이 그런 것처럼 이처럼 험난한 정글에 발목이 잡힌 나도 자고 나면 한 뼘씩 목이 길어졌소 덕분에 까마득하게 높아져서 슬픈 눈을 함부로 들키지 않아 다행이지만,
무기는커녕 장식용에 불과한 이마의 뿔 역시 마찬가지요

위기의 사파리에는 어김없이 사자가 어슬렁댔소 같은 방향으로 일제히 몰리는 기하학적무늬는 끝을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오
얼마나 멀리까지 비극의 지경을 넓히려는 것인지 징중징중 달아나는 무리에게서 풍기는 짙은 소금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소
나는 금강송인가 기린인가, 하고

초대칼럼

이해국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도전하고 좌절하고 위로하며 신나게 즐기는 문화예술

코로나 엔데믹과 대한민국

어느덧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을 향하고 있다. 2022년 연말부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던 7차 대유행도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국민들과 방역, 의료체계 모두가 열심히 애를 쓴 덕분이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는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집중적,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그러나 코로나로 가장 큰 괴로움을 겪은 분야 중 하나는 문화예술이다.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공유하며, 즐기는 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활동이 문화예술이기 때문이다. 한편 디지털미디어 산업은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다. 디지털미디어 산업이 엄청난 기회와 이윤을 창출한 이유는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형태로 재미와 행복감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도 나름 랜선공연, 비대면공연, 공연콘텐츠 디지털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예술콘텐츠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 드라마 등은 OTT(Over The Top)서비스 플랫폼을 만나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다. 즐기는 미디어가 보는 미디어, 즐기는 문화예술이 보는 문화예술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돈 되는 문화예술산업으로의 진화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의 가치

문화와 예술은 일반적으로는 기쁨과 행복, 재미 등 긍정적 감정이나 정서와 연관된다. 그러나 뇌과학과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뇌의 활동 및 기능이 관계된다. 문화와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관람할 때는 변연계의 다양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유발된다. 소위 직접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 감정과 보상반응인 “bottom up(상향)” 형태의 감정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접적으로 문화와 예술활동을 할 때는, 즐기는 과정에서 그 자체의 감정과 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다루는 악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 지난번까지 어려웠던 부분을 잘 연주해낼 때의 성취감, 긴 기간동안 만들어 온 창작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뿌듯함,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유대감과 안정감 등 보다 다양한 정서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정서반응은 “Top down(하향)”방식, 즉 의지적 활동에 감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의 정서반응이다. 문화예술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단지, 말초적 재미로 순간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뿌듯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의 회로를 활성화 시켜주는 작용이다. 나아가 때론 도전하고 좌절하고, 결국 성취해내는 자신만의 작업에 대한 작은 희열을 만들어 내게 해주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함께 뛰어놀며, 규칙을 배우고, 오늘은 지고 내일은 이기는 경쟁을 경험하는 것이 문화이고 예술이고 놀이이고 스포츠활동이다.

무엇으로 나의 뇌를 기쁘게 만들 것인가?

청소년 시기는 뇌발달에 가장 규정적인 시기이다. 14~15세를 전후하여 감정뇌가 완성되고 이성뇌가 가장 활발히 성숙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시기는 재미와 흥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위험감수행동 성향이 높다. 이시기에 즉각적이도 과도한 자극적 재미와 쾌감에 몰두하면, 이성뇌 즉 전두엽의 성숙이 방해를 받는다. 어른이 되어도 질풍노도의 사춘기 뇌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뇌가 재미와 흥분, 성취의 희열을 느끼면서도,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 해답은 바로 문화예술과 스포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2023년, 의정부시 문화예술계가 전력을 다해 해볼만 한 일이다.

전시부문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12월

시

물푸레나무 우듬지에
둥지 튼 까치네 집
“엄청 추우니까 양말 위에 덧신 껴 신고
밖에 나오지 말그레이~.”
밥벌이 나선 엄마 아빠 당부의 말

한참 아래를 내려다보던 엄마까치 눈에
아파트 창턱에서 쉴새없이 풍겨져나오는
난방용 보일러 김이 과하다 싶었는지
“전쟁 중인 나라 땜시 기름 값도 비싸다는데,
허벌나게 기름을 쳐 때는 손모가지 병이나 나불어라.”

사나운 바람이 부는 산골짝
산짐승은 서로 부둥켜안고 잠만 자고
토스카나 외투 한 벌 장만한 들판에선
곁방살이 부산한 벌레들의 남부여대

길에선 진눈깨비에
발뒤꿈치 적신 인간들이
뻗고, 피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시간의 거푸집 뚫고 맹렬히 찾아오실
봄의 음성을 경배하고 있다

이지향

문예지로 등단
시집 『피카소 풍경』 외 10권
소설 『청라언덕』
수필 『까치네 둥지 이야기』 외 1권
엔솔로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자기계발서 『이 세상 잘난 분들 어록』 외 1권
동시집 『고추 먹고 맴맴 칭찬 먹고 ㅎㅎㅎ』
자유기고 및 저술 활동

달과 소년

시

강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사랑 훔친 소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열아홉 소년의 순정이
저 눈발과 함께
소멸해 가고 있다

고통도 살아 있어
죽어가는 것도 축복이라며
한 몸 부서지고 있다

배고픈 아이
기도하는 아이
간절한 아이

달을 따 먹으려
노모(老母)의 집 쓸쓸한 안마당에서,
때로는 천보산(天寶山) 내다뵈는
아파트 2001호 갈비뼈에 매달려
홍시처럼 오십 일 년을 살아온 소년

이제 그 소년을 따먹은
흰 낮달이 지고 있다.

김선용(金善庸)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 석사
1996년 계간 『문예와 비평』 여름호 신인상 등단
시집 『소금인형의 사랑』(월간문학사, 2004),
『나비가 지나간 자리처럼』(문학의전당, 2022)
경복여고, 진명여고, 경민고등학교를 거쳐
현재 의정부시 소재 경민중학교 국어교사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흙빛문학회 회원

Someday

수필

"나는 늙는 것이 좋아. 하루라도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라고? 소름끼치는 소리!"
나는 오늘부로 나의 이런 헛된 말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저런 말을 당당한 척 하면서 떠들고 다닌 뻔뻔스러웠던 지난날의 나에게 한 다발의 경멸도 선사하면서.
늙는다는 것을 곱디고운 자태를 여전히 간직한 노부인이 되어 아담한 집의 창가에 앉아 라벨이나 사티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제법 두툼한 인문서를 뒤적이고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의 간편 기능으로 페북에 댓글을 달고 누군가의 초대로 연극이나 음악회를 가고 정돈된 사고를 가지고 글을 쓰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지갑을 열고 여전히 굿네이버스에 후원금을 보내고 산책을 하고 같은 부류의 인간들과 교류하면서 짬짬이 멀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그와 비슷한 노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문학적인' 내가 늙는다는 것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결별하고 제 스스로 히키코모리가 되어 곰팡이가 피어있는 낡고 오래된 임대아파트의 좁디좁은 공간의 작은 식탁에 앉아 한쪽 스피커가 망가진 엠프에서 흘러나오는 리베라탱고에 박자를 맞추면서 마른기침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꼬나물고 가끔씩 싸구려 포도주를 들이키면서 이미 헝클어진 반백의 머리칼을 다른 한 손으로 습관적으로 헝클면서 낡은 노트북에 코를 박고 외설과 사랑을 위태하게 넘나드는 '예술'적인 자전소설을 마른 뼈가 드러난 앙상한 손가락으로 마치 바늘을 꽂듯 '창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년에 대한 나의 그런 생각을 참으로 소박하다고 자찬하면서 지냈던 내가 무색해진다. '소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야말로 사람들이 바라는 노년에 대한 로망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늙음을 엿본 지 한 달여가 흘렀다. 그동안 나도 아주 재빠르게 늙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책과 영화와 연극과 각종 드라마의 숱한 과장법을 나는 혐오한다. 그들은 과장을 통해 늙음을 너무 미화하거나 비하했다. 그렇게 왜곡한 늙음의 '정의'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니!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늙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이며 몸의 기관들이 부실해져서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잠잘 수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며 소심해지고 쉽게 노여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고 수면부족이 되는 것이며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며 자식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외면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아프거나 죽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며 행동반경이 조금씩 좁아져서 동네에서 집 앞까지 집 거실에서 드디어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만 운신해야 하는 것이며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며 TV드라마의 재방송 재재방송 다시 다섯 번 여섯 번 재방송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며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매일 다음에 주마, 하는 것이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늙는다는 것은 자식들이 두려워지는 것이며 오 분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오 분 후에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몸을 타인이 돌보아 주어야 연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이름을 간신히 기억하는 것이며 겨울과 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상하게 병들어 침대에 누워 친지들의 병문안을 받고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고 주고 간 봉투를 다시 며느리나 딸에게 용돈으로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타인의 손길에 의하여 배설물에 더럽혀진 옷을 벗기우고 아랫도리를 드러내며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식사량에 화조차 내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 달여 동안 매일의 오전 시간을 미래의 나일 수도 있는 모습과 함께하다가 미래의 나일 수도 있는 모습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 아주 천천히 늙어가고 있는 나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새삼 나의, 통상적으로 남았거나 남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여분의 삶에 대하여 도식적으로 꿈꾸기를 포기하고야 만다. 매일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현재 늙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다분히 늙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소름끼치는 것은 내가 본 그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나도 언제인가는 그런 늙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Someday!
늙으면서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은 기억의 상실과 육신의 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라는 누군가의 말은 재해석되어 나에게 들려온다.
아아, 제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야 할 텐데. ◆

이숙경

의정부문인협회 부지부장
2006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2006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2009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선정
2018년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
저서·소설집 『유라의 결혼식』 외 7권

해피앤드

엽편소설

그 집은 연숙이 짐을 챙겨 나가고 빈집이 되었다.
밥을 머리에 이고 나른 돈을 모아 간신히 마련한 엄마의 집이었다. 엄마의 소원은 집이었으나 공원 매점에서 알바를 하는 연숙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 줄 수가 없었다. 집은 엄마의 노래였고 연숙에겐 외계인의 언어였다. 꿈에서 조차 읽을 수 없는.
폐가처럼 비어있던 집인데 여자 둘이 산다며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허락 없이 기웃거렸다. 엄마는 낡은 피아노 건반 같은 좁은 마루를 손마디 관절이 어긋나도록 문지르고 닦았다. 벌레의 서식처가 된 건조한 마루는 손이 닿으면 부서졌다. 더 이상 반질거리지 않는 마루였지만, 엄마에겐 검은 지문처럼 어두운, 과거의 기억을 마모시키기에 적당한 일거리였다. 엄마는 옹이가 함부로 파인 기둥에 기대어 우뚝 선 건물 뒤로 끌어 내려지는 석양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석양빛에 물든 엄마의 옆모습은 인디안 족장처럼 외로워 보였다. 스러져가는 저녁의 해를 뒤로 감춘 빌딩은 곧이어 검은 덩어리가 되어 바위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혹한의 바람이 문풍지를 사납게 헤치고 드나들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엄마와 연숙은 겨울을 이겨냈다. 거머리처럼 악착같이 달라붙던 추위가 떨어져 나가자 곧이어 엄마는 앓아누웠다. 의사는 환자복을 입은 엄마 옆에서 시한부를 선고했다. 시한부라는 과녁은 연숙을 흔들었지만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엄마는 의사의 예언보다 일찍 연숙을 고아로 만들었다. 엄마를 화장하고 그녀가 오래도록 머물고자 했던 집으로 연숙은 혼자 돌아왔다. 화장장에서 건네받은 단지는 다알리아를 파내고 묻었다. 엄마가 기뻐했던 다알리아는 꽃이 되지 못하고 썩어 버렸다.

김효경
소설가, 일러스트레이터
의정부문인협회 산문분과장

소원과 달리 엄마에게 필요한 건 집이 아니었다. 배반하지 않는 피난처였다. 남들이 맹지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빈집을 엄마는 골랐다. 아무도 탐내지 않는 쓸쓸한 집이라서 엄마는 좋다고 했다. 엄마는 그렇게 쓸모없으면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연숙은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았다. 이기적이고 차갑게 스스로를 무장했다. 유용하지 않으면 쉽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빈집을 관리하는 보상으로 바라는 것이 없었다. 인연이 끊겨버린 빈집으로, 쉽게, 성가시지 않게 생각했다. 피오나는 당연히 연숙이 데려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 반려동물은 키울 수 없다는 조건이 달린 원룸 계약서 한 줄로 피오나는 연숙이 떠난 빈집에 남게 되었다. 작별 인사로 연숙이 머리를 쓰다듬자 피오나는 귀찮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엄마의 빈집과 피오나로 부터 얻은 자유로 연숙의 입매가 옆으로 길어졌다. 피오나는 발톱으로 내 손등을 날카롭게 긁어 적의를 드러냈다. 손등은 새로 생긴 붉은 선으로 쓰라렸다. 낯선 방을 탐색하던 피오나는 화장실 창문으로 가볍게 뛰어오르더니 훌쩍 날아 탈출하고 말았다. 피오나는 빈집 담장 위에서 나를 짧게 응시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잠시 동안 피오나와 접촉했던 나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피오나를 안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잠자고 있던 고양이 알레르기가 유쾌할 수 없었다. 나는 엉겁결에 빈집과 피오나 관리인이 되었다.
그 둘은 주문하지 않은 택배였다. 물론 반송도 불가능했다. 나는 주인 없는 빈집에서 마당을 쓸고 피오나에게 사료를 주었다. 언제나 밥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피오나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와 연숙이 떠났지만 담장 밑으로 근본 없는 잡초가 무뢰한처럼 번성했다. 절망과 희망을 모르는 잡초는 뿌리가 뽑혀도 매번 연초록으로 성가셨다. 여린 잡초는 성의없이 아름다웠다.
빈집 마당에는 전날의 빗자루 자국이 선명했다.
새로운 빗질로 전날의 흔적을 지웠다, 나는.

소금강 만설 (한국화, 150×70cm, 혼합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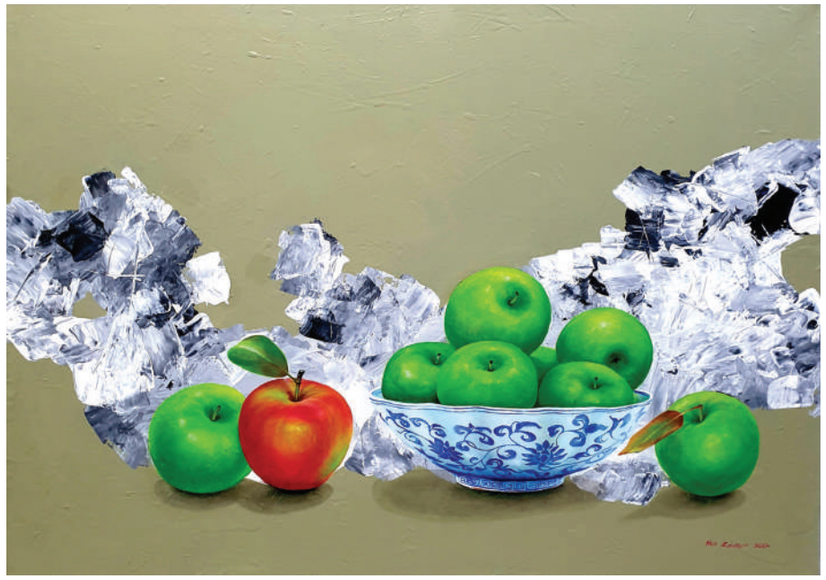
마해용

홍익대학교
대산 김동수 사사
개인전 및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미술관, 킨텍스, 예술의전당, 강릉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홍대미술관, 뉴욕 등 다수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연 3회 특선 및 입선, 전국기자협회대상, 미술부문 대상
예총 국회의원상 수상 등 다수
심사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 경기도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기자협회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다수
작품소장처 경기도청, 전국 기자협회관, 의정부시청, 문화재단 및 시의회 등 다수
현재 대한민국미술협회 초대작가, 의정부미협 이사, 의정부예총 감사
전국기자협회 미술부문심사위원, 목요 사생회 임원, 용화랑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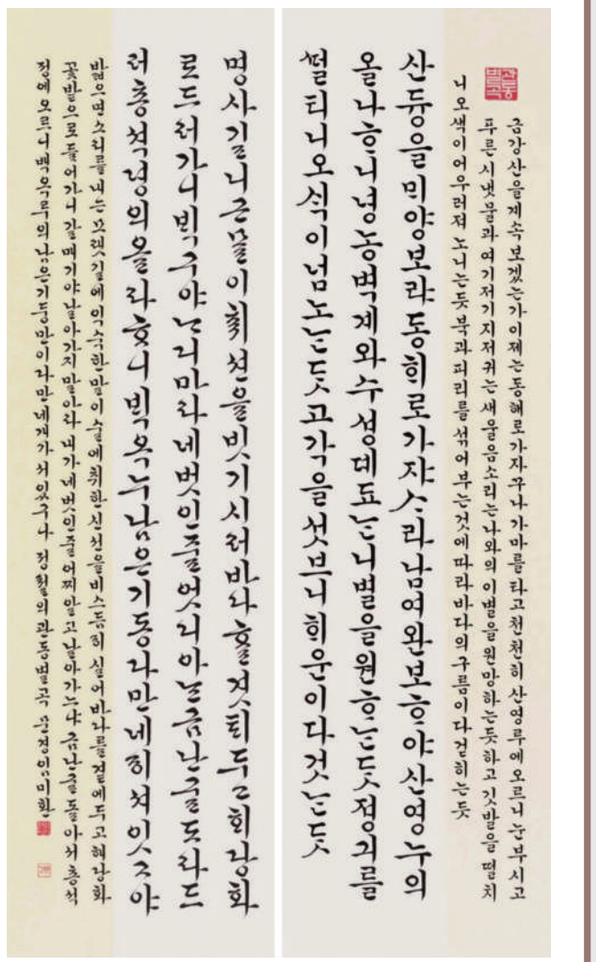
천,지,인 天,地,人 (150×210cm, 장지에 먹·분채·아크릴)

임응섭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재학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지부장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 이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사)경기도미술협회 초대작가·심사위원 및 서예분과위원장
전국회룡미술대전 대회장
의정부문화상(문화예술부문) 수상
(사)경기미술협회 북부협의회 회장
2010개인전(의정부예술의전당전시실)
여민서예조형연구소 대표
의미파인아트 대표



태고적 향기 2022 (90.9 x 65.1cm, oil painting)



관동별곡 (52×190×2, 화선지에 먹)

허존(許存)

개인전 6회, 부스개인전 3회
2022 한·중·일 ART국제교류전(광주광역시 드영미술관)
Oiympic-올림-pic 展(강원 정선 작은미술관 아트터미널)
Art for Harmony(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교류전, 인사동 라메르)
한·중 교류 초대展(내몽고자치주 호화호특구)
대한민국 선정작가 초대작가展(서울시립미술관)
한성백제미술대상전(예송미술관)
The open door 전(Gallory Godo, 인사동)
View Finder of YAP 전(Gallory Jung, 광화문)
이외 기획 및 초대전 200여회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미술협회, 경기미협, 의정부미협 운영위원

임미환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경기 미술서예대전 초대작가, 운영, 심사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 심사
세계문화예술대전 초대작가, 운영, 심사
한국서학회, 갈물한글서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한글 한문서예 강사

소멸

희망

강양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예총 이사
제33회 경기예술대상 특별공로상, 2022PASK AWARDS 회원표창
경기북부사진연구회 회원전, 경기북부지역작가초대전 외 다수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안성맞춤아트홀 전시
제5회 평택국제사진축전_바깥전 참여 / 올해의 우수작가 선정
2022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양평군립미술관 전시
제8회 끌림展 참여 / 세미갤러리-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주관
제26회 전국회원사진전 "구름이 있는 풍경"전 _ 함양문화예술회관
아트서울2022 참여 /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홍익미술협회주관

권희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호로고루성지의 평화

환희

김광수

1962년 충주 출생
중앙대학교 졸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부지부장 역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제19대 지부장
의정부예총 수석부회장, 경기북부사진연구회 회장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프로인상사진 추천작가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상, 국립공원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김광수 사진전 5회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서산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외 다수

엄만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경기북부사진연구회 정회원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강원사진대전 심사 외 다수 심사
한국예총 의정부지회 감사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 대상 외 다수 수상

표지 사진 : 김광수 | 제 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 시청 전경

의정부예술

Uijeongbu Arts & Culture 2022

발행처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발행인 이미숙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연락처 t. 031 837 9000 / f. 031 837 9011
이메일 yechong477@hanmail.net
홈페이지 http://yechong.co.kr
편집위원장 김문희
기 획 의정부예총 사무국
출 판 동심원(t.031 852 9333)

※ 이 책은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의정부예총에 있습니다.
의정부예총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